

함께 드리는 대림절 기도문 9
- 절망한 사람으로 오시는 그리스도 -

2020년 2월 14일

자신을 낮춤으로써 그리스도는 죄와 죽음의 세계 안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인간(神-人)으로서 인식될 수 없을 만큼 나약하게 죄와 죽음의 세계로 들어가십니다. 그리스도는 신적 용모를 갖추고 왕의 옷을 입고 들어가시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는 거지들 가운데 한 거지로서, 추방당한 사람들 가운데 한 추방당한 사람으로서, 절망한 사람들 가운데 한 절망한 사람으로서, 죽어가는 사람들 가운데 한 죽어가는 사람으로서 드러나지 않게 오십니다. (*“Wer ist und wer war Jesus Christus? Seine Geschichte und sein Geheimnis”* 中)

‘이 시대에 희망이 있는가?’ 요즘 새삼스럽게 이 질문을 되뇌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희망이 어디 있느냐고 개탄합니다. 그렇지만 이 시대에 희망이 있느냐는 물음은 근본적으로 잘못된 물음입니다. 희망이 있으면 어떻고, 희망이 없으면 어떻다는 말입니까? 희망이 있으면 투자하고, 희망이 없으면 발을 빼버리겠다는 말일까요? 도대체 그 희망이란 무엇입니까? 희망이란 확률과는 다른 것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따져보고 저렇게 계산해 보아서 성공할 확률이 50%가 넘으면 희망이 있다고 말합니다. 만약 그 확률이 50%에 못 미치면 희망이 없다고 결론을 내리지요. 그렇지만 희망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이 시대 안에 있습니다. 희망은 우리 시대에 대한 책임적 존재양식일 뿐입니다. 희망은 방관자들의 몫이 아닙니다.

성서가 말하는 희망은 결코 확률에 따른 가능성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아브라함은 모든 가능성이 차단된 바로 그때에 희망의 길을 떠났습니다. 또한 모세는 희망을 이루지는 못했지만, 오직 그 희망을 바라보며 자신의 길을 마쳤습니다. 희망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들이 믿음으로 살아야 했던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십자가야말로 희망 없는 시대의 유일한 희망입니다. 우리의 희망은 우리 자신에 토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희망은 단지 하나님의 승리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희망을 보증하는 것은 믿음뿐입니다.

요즘 교회에 희망이 있느냐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립니다. 서구 교회의 퇴락과 교회의 무력증은 그런 경고를 소홀히 넘길 수 없게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교회는 이미 수적으로도 쇠락의 길에 접어들었고, 무엇보다 그 정체성을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책임적 희망이 요청됩니다. 믿음으로 희망을 살아가는 삶 말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결코 희망이 없습니다!

희망의 절기인 대림절에 그리스도가 우리의 희망으로 오십니다. 그리스도는 어떤 모습으로 오십니까? 강력한 반신반인의 영도자로, 해결사로 오시나요? 아닙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절망한 사람으로 오십니다. 여기에 우리의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는 주님, 이 절기에 우리가, 우리에게 절망한 사람으로 오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소서. 아니, 우리 안에서 절망하고 쫓겨나고 죽어가는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게 하소서. 우리를 희망으로 일으켜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¹⁾

1) 책 : 본회퍼와 함께 기다리는 성탄 (대림절묵상집) / 출판사 : 대한기독교서회 / 출간일 : 2017.11.5. / 48~49쪽